박지원 당선인 득표율 92.35% '전국 최고'

문금주 90%·주철현 88% 민주 텃밭 압도적 지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18석을 모두 싹쓸이한 가운데 해남완도진도의 박지원 당선인이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개표 결과 박지원 당선인의 득표율은 92.35%(7만8324표)에 달했다. 이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최고 득표율이다.

'정치 9단'인 박 당선인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으며, 득표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다.

박 당선인에 이어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당선인이 90.69%(9만5357표)의 득표율로 광주·전남 2위에 이름을 올렸고, 여수갑의 주철현 당선인(88.89%·6만9092표), 광주 동구남구갑의 정진욱 당선인(88.69%·8만2883표)이 뒤를 이었다.

이어 △북구갑 정준호(83.45%·8만6713표) △광산구갑 박균택(81.70%·7만4102표) △광산구을 민형배(76.09%·9만4733표) △북구을 전진숙(72.11%·9만9993표) △목포시 김원이(71.43%·8만2700표) △서구을 양부남(71.39%) 5만8037표 △나주화순 신정훈(71.06%·7만4063표) △동구남구을 안도걸(70.16%·6만4558표) △서구갑 조인철(68.42%·5만6267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70.09%·10만4493표) △영암무안신안 서삼석(69.17%·7만3053표) △여수을 조계원(68.01%·5만1811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64.34%·8만5172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56.46%·6만1042표) 등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이들 당선인 모두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18석을 싹쓸이한 배경에는 역시 '정권심판론'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경쟁을 펼칠 대항마가 없었던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단수공천을 둘러싼 진통을 겪은 이개호 당선인은 50%대 득표율에 머물렀다. 현역 단수공천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석형 후보는 35.91%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선전했다.

곽지혜·김은지 기자

민주 광주 당선인들 "호남 자존심 다시 살릴 것"

5·18 묘지 참배… 시민에 '큰절'

4·10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 8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11일 "당당한 정치, 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큰 정치로 호남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당선인 8명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지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참배에는 동남갑 정진욱, 동남을 안도걸, 서구갑 조인철, 서구을 양부남, 북구갑 정준호, 북구을 전진숙, 광산갑 박균택, 광산을 민형배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결과는 국가를 걱정하신 광주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의 것이다'는 말씀을 새겨 민주주의 성지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대한민국 정상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이태원참사·채 상병 사망 은폐·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 5대 실정을 심판하겠다. 민생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국회의 중심에 놓겠다"고 역설했다.

당선인들은 △군공항 이전 매듭 △인공지능·바이오·미래모빌리티·에너지 등 첨단미래 산업 육성 △광주 관광 활성화를 약속했다.

당선인들은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민심을 모아 민생 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의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을 향해 감사의 의미를 담아 큰 절을 했다.

김은지 기자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정=녹색정의당, 새=새로운미래, 개혁=개혁신당, 진=진보당, 소=소나무당, 기독=기독당, 한=한국농어민당 , 무=무소속

동구남구갑 정진욱

정진욱(59·민)	8만2883표(88.69%)
강현구(68·국)	1만563표(11.30%)

광산구갑 박균택

박균택(57·민)	7만4102표(81.70%)
김정현(56·국)	6318표(6.96%)
정형호(68·새)	3145표(3.46%)
정희성(53·진)	5780표(6.37%)
양윤열(40·무)	1351표(1.48%)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권향엽(56·민)	10만4493표(70.09%)
이정현(65·국)	3만5283표(23.66%)
유현주(53·진)	9288표(6.23%)

동구남구을 안도걸

안도걸(59·민)	6만4558표(70.16%)
박은식(39·국)	7936표(8.62%)
장도국(33·개혁)	1531표(1.66%)
김미화(47·진)	3115표(3.38%)
김성환(62·무)	1만4865표(16.15%)

광산구을 민형배

민형배(62·민)	9만4733표(76.09%)
안태욱(57·국)	5941표(4.77%)
김용재(53·정)	1471표(1.18%)
이낙연(71·새)	1만7237표(13.84%)
전주연(49·진)	5110표(4.10%)

나주화순 신정훈

신정훈(59·민)	7만4063표(71.06%)
김종운(66·국)	9560표(9.17%)
안주용(57·진)	2만593표(19.75%)

서구갑 조인철

조인철(59·민)	5만6267표(68.42%)
하헌식(57·국)	7498표(9.11%)
강승철(53·진)	4174표(5.07%)
송영길(61·소)	1만4292표(17.38%)

목포 김원이

김원이(55·민)	8만2700표(71.43%)
윤선웅(47·국)	6393표(5.52%)
박명기(54·정)	2677표(2.31%)
최국진(52·진)	3546표(3.06%)
최대집(51·소)	4647표(4.01%)
이윤석(64·무)	1만5811표(13.65%)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이개호(64·민)	6만1042표(56.46%)
김유성(63·국)	4904표(4.53%)
김선우(58·새)	2228표(2.06%)
곽진오(61·개혁)	1104표(1.02%)
이석형(65·무)	3만8827표(35.91%)

서구을 양부남

양부남(63·민)	5만8037표(71.39%)
김 윤(60·국)	6360표(7.82%)
강은미(53·정)	1만1922표(14.66%)
최현수(47·개혁)	1138표(1.39%)
김해정(46·진)	3619표(4.45%)
김천식(82·기독)	218표(0.26%)

여수갑 주철현

주철현(65·민)	6만9092표(88.89%)
박정숙(57·국)	8633표(11.10%)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문금주(56·민)	9만5357표(90.69%)
김형주(63·국)	9780표(9.30%)

북구갑 정준호

정준호(43·민)	8만6713표(83.45%)
김정명(57·국)	8856표(8.52%)
김주업(55·진)	6396표(6.15%)
장경수(69·무)	1937표(1.86%)

여수을 조계원

조계원(57·민)	5만1811표(68.01%)
김희택(62·국)	4032표(5.29%)
여 찬(28·진)	3291표(4.32%)
권오봉(64·무)	1만7044표(22.37%)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박지원(81·민)	7만8324표(92.35%)
곽봉근(79·국)	6481표(7.64%)

북구을 전진숙

전진숙(55·민)	9만9993표(72.11%)
양종아(49·국)	9877표(7.12%)
박병석(54·새)	4674표(3.37%)
김원갑(63·개혁)	1444표(1.04%)
윤민호(53·진)	2만2664표(16.34%)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김문수(55·민)	8만5172표(64.34%)
김형석(58·국)	1만1592표(8.75%)
이성수(54·진)	2만3890표(18.04%)
신성식(58·무)	1만1721표(8.85%)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서삼석(64·민)	7만3053표(69.17%)
황두남(62·국)	6891표(6.52%)
윤부식(51·진)	3284표(3.10%)
김팔봉(64·한)	732표(0.69%)
백재욱(59·무)	2만1651표(20.50%)

"호남의 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이 되겠습니다"

2024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

전남일보는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를 개최합니다.
전남일보는 지난 2014년 이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자 교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호남의 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이 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례회에서는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도약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선거 당선자와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4월 15일(월) 오후 2시~3시40분
참석대상 :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및 광주·전남 초청 인사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4층 컨벤션홀
문의 :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1)

全南日報